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우리조명(037400)

하드웨어/IT장비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최윤희 선임연구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조명(037400)

54년 업력의 광원 전문기업, 스포츠 조명 시장 진출

기업정보(2020/11/13 기준)

대표자	윤철주, 박길수
설립일자	1966년 01월 18일
상장일자	1999년 12월 16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주요제품	LED 전구 및 조명장치

시세정보(2020/11/13 기준)

현재가	2,13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531억원
발행주식수	24,923,346주
52주 최고가	2,370원
52주 최저가	657원
외국인지분율	2.27%
주요주주	
윤철주 외 4인	30.0%
자사주	7.9%

■ 54년 업력의 광원 전문기업

우리조명(이하 동사)은 장수램프, 장수LED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54년 업력의 광원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LED 에피 칩에서부터 모듈/패키지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으로 동사에서는 완제품인 LED 전구 및 조명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 차별화된 디자인 및 고효율 설계 기술 보유

동사는 고내열성 LED 기판, 도광판 설계 기술, 직류 구동 전원 방식 등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효율의 LED 전구 및 조명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별도의 디자인부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와 환경, 심미성을 강조한 차별화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중국의 저가형 LED 조명에 대응하고 있다. 이 외에도 Wifi와 블루투스 버전의 스마트 조명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조명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한 “LED 등기구” 품질 비교시험에서 오스람과 함께 우수한 광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되나 정책 수요 등으로 시장은 성장 중

조명 시장은 중소기업 난립에 따른 경쟁 심화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략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LED 조명으로 교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에 의한 수혜, 인간중심 조명으로의 조명 산업 패러다임 변화(스마트 조명), 옥외용 조명장치의 LED 교체 수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지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4,961.7	-4.3	-37.2	-0.3	-232.8	-1.6	-6.7	-3.0	249.3	-218	3,512	-	0.5
2018	13,022.9	-13.0	-118.6	-0.9	-352.6	-2.7	-19.0	-5.2	325.6	-575	3,069	-	0.3
2019	16,977.3	30.4	270.9	1.6	54.0	0.3	1.7	0.8	308.8	48	3,039	25.7	0.4

기업경쟁력

조명 제품의 수직 계열화

- 당사는 LED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제조라인 수직 계열화로 비용 절감 및 부품 수급 안정성 확보
- 최근 3개년 평균 0.43%의 연구개발투자비 지급, 특허권 5건, 디자인권 3건, 상표권 20건 보유 (2020.11.05. 기준 KIPRIS 검색결과)

54년 업력의 광원 전문기업

- 당사는 1966년 전구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사 사업 영위 중
- 업력에 따른 생산 노하우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시장 대응 노하우 보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차별화된 디자인 및 고효율 설계

- 심미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제품 생산
- 효율성을 고려한 확산판, 배광판, 발광회로 설계 기술 보유

LED램프



LED등기구



매출 비중

■ 2019년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비중 (연결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매출액	비중
조명사업부문	25,079	1.5%
LED BLU	1,649,755	97.2%
PCB/도광판 등	21,263	1.2%
건강기능식품	1,628	0.1%
나노첨유	-	-
총합계	1,697,725	100.00

시장경쟁력

국내 LED 전등 시장전망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년	1조 757억 원	연평균 8.7% ▲
2022년	1조 5,043억 원	

세계 LED 조명시장 전망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9년	697억 달러	연평균 9.0% ▲
2023년	985억 달러	

LED 조명 시장동향 및 특징

- 세계 각국의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른 LED 조명 교체 수요 증가
-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 그린 뉴딜정책, 조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긍정적 요인 보유

최근 변동사항

스포츠 조명 시장 진출

- 조명시설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스포츠 조명 분야 진출
- 대한당구연맹 공식후원사로 조명 제작 지원, 스포츠 조명 사업 역량 강화

관계사 우리이앤엘 LG디스플레이항 납품 점유율 증가

- LG이노텍이 LED사업부를 정리하며 기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IT 제품용 LED BLU 공급 물량을 관계사인 우리이앤엘이 확보

I. 기업현황

54년 광원 전문기업, LED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제조라인 수직계열화

동사는 조명 시장을 54년간 지켜온 광원 전문기업으로 장수램프, 장수 LED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LED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연결회사를 통해 LED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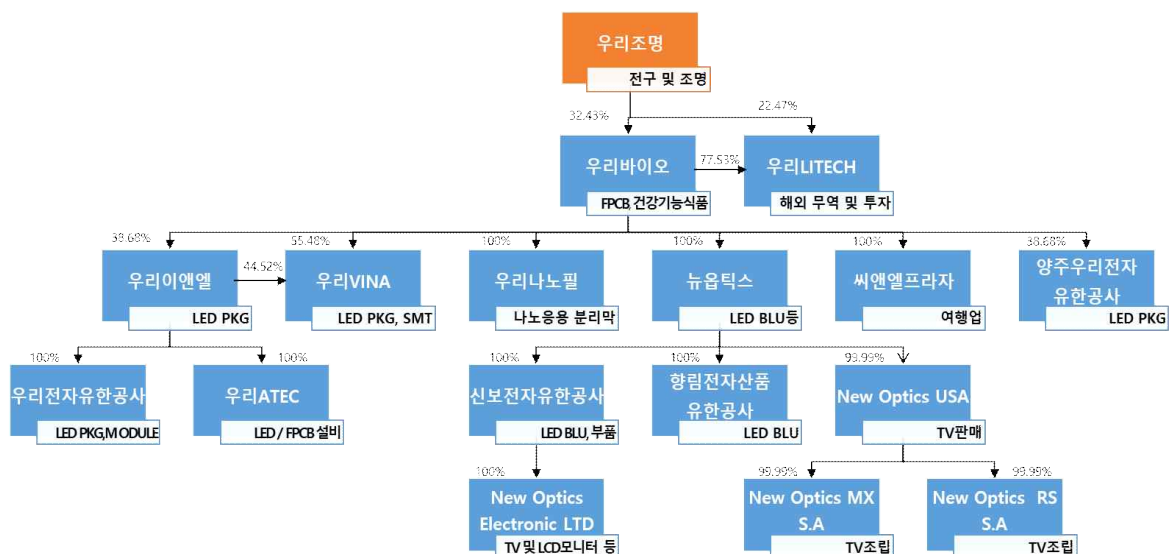
■ 회사 개요: 연혁, 관계회사, 주요주주

우리조명은 1966년 전구제조를 목적으로 풍우실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87년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1996년 합작법인 청산 후 우리조명을 설립하였으며, 199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로 전환 승인되어 상호를 우리조명지주로 변경하였으나, 2013년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되어 2014년 우리조명으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요 종속회사 및 사업 영역은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PCB), 박막트랜지스터(Thin-Film Transistor, TFT)-LCD와 관련된 부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우리바이오(구. 우리이티아이), LED 소자를 이용한 LED 패키지, LED 모듈, 일반조명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우리이앤엘(주), TFT-LCD용 백라이트 부품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주)뉴옵틱스, SMT(Surface Mounter Technology) 생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 우리비나(Woori Vina Co., Ltd.), 백라이트 부품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신보전자유한공사 등이 있다.

동사는 LED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기반을 광소자(에피 칩)에서부터 모듈/패키지 까지 즉, LED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제조라인을 수직 계열화하여 역량을 다지고 있다.

[그림 1] 동사 계열회사 및 지배관계도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회사 개요 : 주요주주, 대표이사 이력

동사의 최대주주는 윤철주 각자대표이사(우리조명그룹 회장)로 동사의 지분 23.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는 29.95%이다.

동사의 윤철주 각자대표이사는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동사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창업자인 장세원 회장에게 경영 수업을 받고 2000년 경영권과 지분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동사를 운영 중에 있다. 박길수 각자대표이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우리이앤엘을 거쳐 2018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동사를 경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노필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표 1] 동사 주요 주주

주주명	관계	지분율(%)	주주명	관계	지분율(%)
윤철주	본인	23.21	박길수	대표이사	0.21
뉴옵틱스	계열회사	2.76	차기현	계열회사임원	0.21
우리이앤엘(주)	계열회사	3.56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 및 매출실적

동사는 백열램프, 형광램프, 할로젠램프, LED 전구 및 LED 조명장치 등을 주력제품으로 하는 전구 및 램프 제조업을 영위 중이며,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절감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LED 패키지, LED BLU(Back Light Unit) 등을 개발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개별 매출보다는 LED BLU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관계사에 의한 매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기준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LG디스플레이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LG이노텍이 LCD패널 사업을 철수하면서 기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노트북, 태블릿, 사이니지 등의 IT 제품용 LED BLU 공급 물량을 관계사인 우리이앤엘이 확보하며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표 2] 동사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K-IFRS 연결기준, 단위: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및 용도	2018년		2019년		2020년 반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조명사업부문	일반조명, LED조명	22,664	1.7	25,079	1.5	11,200	1.5
	LED라이트바, PKG	110,747	8.5	100,568	5.9	40,477	5.6
LED BLU	LED설비 등	-	-	-	-	-	-
	SET TV 및 LED PKG	1,157,522	88.8	1,549,187	91.3	662,012	91.18
PCB/도광판 등	MPCB(조명용) FPCB(MOBILE)	11,358	1.0	21,263	1.2	6,913	1.0
건강기능식품	-	-	-	1,628	0.1	5,532	0.8
나노섬유	나노섬유(기능성원단)	-	-	-	-	-	-
합계		1,302,291		1,697,725		726,13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및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되나 정책 수요 등으로 시장은 성장 중

경쟁 심화, 저가 제품 공략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 조명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지속 성장 중에 있다.

■ LED 응용분야 중 하나인 LED 조명

LED 산업은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소자(LED 칩) 및 광원,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제품 제조산업 전반을 의미하며, LED 조명은 LED 응용분야 중 하나이다. 부품 조립기술 중심의 일반조명과 달리, LED 조명은 반도체 광원 및 구동회로, 광학·방열 설계로 구성된 전자제품이다. LED 조명은 일반조명 대비 높은 광전효율, 긴 수명, 다양한 색상 구현 장점 등이 있어 일반조명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분야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절감 영향력이 큰 산업 분야이며, LED 조명으로 대체 시 큰 전력 감축 효과가 기대되어 각국에서는 LED 조명 활성화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LED 조명은 일반조명 대비 초기 구입비용은 높으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환경 유해물질(수은 등)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으로, LED 조명의 전력 절감율은 백열등 대비 90%, 할로겐 대비 86%, 형광등 대비 49%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LED 조명의 생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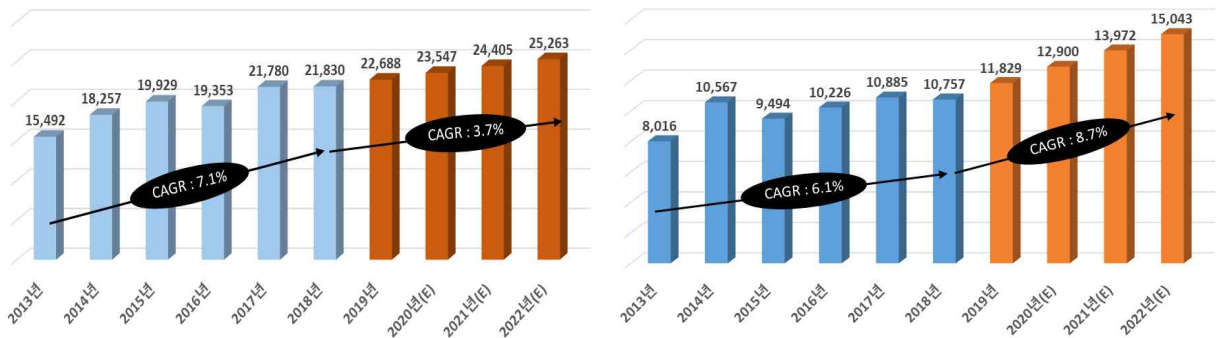
*출처: LG경제연구원

■ 국내 조명장치 시장규모 및 전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고정식 조명장치, 이동식 조명기구, 산업용 조명장치, 옥외용 조명장치, 조명장치 부분품 등을 포함하는 국내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시장은 2013년 1조 5,492억 원에서 2018년 2조 1,830억 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수요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후 연평균 3.7% 증가하여 2022년에는 2조 5,263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른 국내 LED 전등의 출하금액은 2013년 8,016억 원에서 2018년 1조 757억 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수요예측 자료를 고려할 때 이후 연평균 8.7%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조 5,043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조명 가격의 하락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제품의 국내 유입, 세계 조명기기 시장에서 대기업 및 브랜드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업체들의 과점경쟁체제가 지속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림 3] 국내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좌) 및 LED 전등(우) 시장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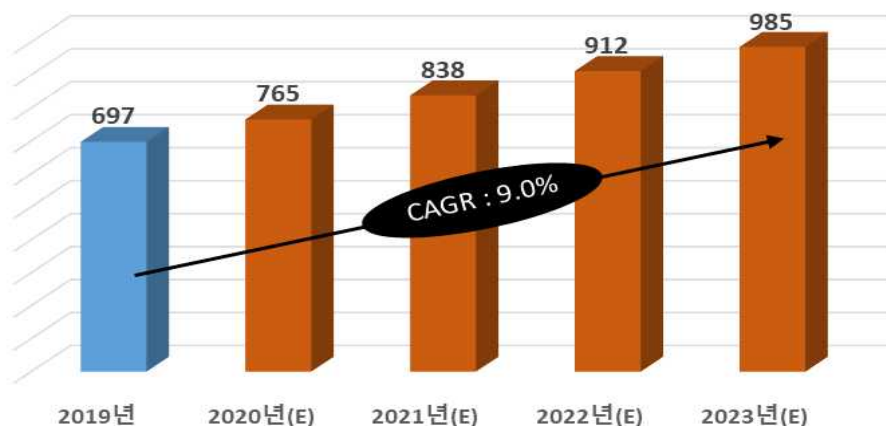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ICE디앤비 재구성

■ 세계 LED 조명시장 전망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른 백열전구의 생산 및 판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수요가 대체되고 있어,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LED 조명시장은 2019년 697억 달러에서 연평균 9.0% 증가하여 2023년에는 98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Grand View Research는 코로나 19로 인해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LED 조명 공급도 중단되어 단기적인 성장은 주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성, 비용 절감, 긴 서비스 수명, 낮은 열 방출 등의 이점과 다양한 설계 옵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세계 LED 조명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Statista, Global LED lighting market size from 2019 to 2023(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그린 뉴딜정책 수혜 기대

산업통산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조명은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된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LED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방향이다.

정부는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동사의 사업과 연관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10대 대표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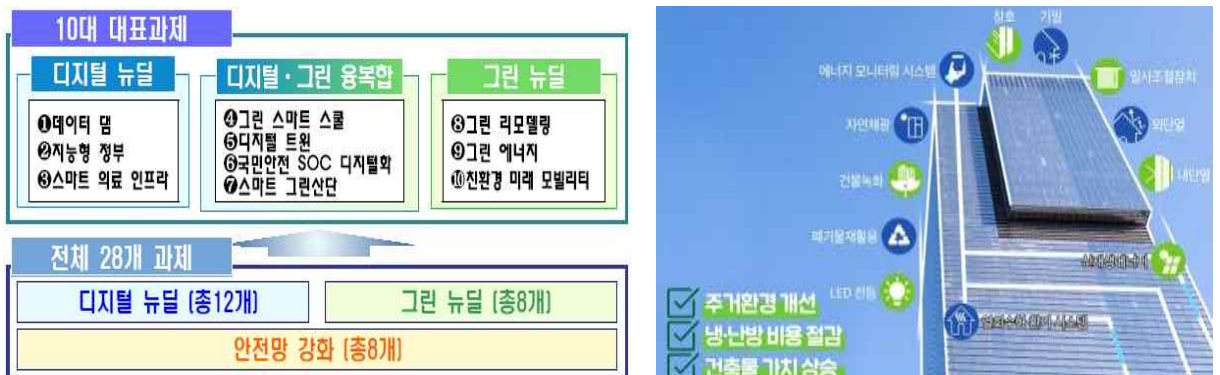
그린 모델링 사업은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건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 사업이 존재하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7조원, 2025년까지 20.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문화시설의 조명이 LED로 교체되고 신축 건축물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가 사용되도록 추진되면서 전반적인 LED 조명 시장에도 수혜가 예상된다.

[표 3] 그린 리모델링 사업 내용

주요 투자사업	사업 내용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문화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정부청사	노후 청사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통신선 공동 지중화 추진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

[그림 5] 한국판 뉴딜 정책 - 추진과제(좌),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 개요(우)



*출처: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



■ 조명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스마트 조명

일광 조건이나 움직임 여부에 따른 자동제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등을 높이는 스마트 조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단순 조명과는 달리 조명에 센서를 부착하고 유/무선 통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연결해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

조명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가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단순한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최근에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중심 조명’ 구현으로 변화되면서 스마트 조명은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활 패턴과 주변 상황에 따라 조명의 조도와 색상을 조절해 시각적 편안함과 신체 리듬을 반영한 인간중심 조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Ⅲ. 기술분석

오랜 업력에 기인한 조명 설계와 차별화된 디자인 기술

동사는 난립하는 중소기업 및 중국의 조명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디자인부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차별화된 디자인 및 고효율 설계 기술

동사는 LED 산업조명, LED 흡조명, LED 스포츠 조명, LED 상업조명, 가정용 일반조명 등 54년 동안 다양한 조명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LED 조명은 LED 모듈을 장착하여 제작된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LED는 기존 형광등, 백열등 등의 광원보다 광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으며, 수은(Hg)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얇고, 가볍게 제품 제작이 가능하며, 집적화 및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도 가능하다.

LED 조명은 LED 패키지 모듈과 SMPS 전원 모듈을 공급받아 조립하여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또는 베트남 등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조립 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다. 동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램프 및 조명기구를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그림 6] 동사 LED 조명 종류

LED램프					
					
					
					

*출처: 동사 카탈로그

동사는 고객사에 맞는 고효율, 장수명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동사는 고속화, 고밀도화 및 LED의 발열문제에 따른 방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베이스 레이어에 기존 수지 계통 대신 메탈을 적용한 PCB를 사용하여 발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제품의 원가와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교류(AC) 구동 방식을 이용해 조명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직류(DC) 및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방식은 전류 변환을 위한 컨버터 등의 추가 부품 사용과 복잡한 회로로 인한 추가 전력 소모를 야기하나 교류 구동방식은 전류 변환을 위한 컨버터가 필요하지 않아 소형화가 가능하고 회로의 복잡도가 줄어들게 되어 고장에 따른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교류 구동 방식도 동일한 동작전원을 얻기 위해 다수의 저항이 사용되며 전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나 동사는 다수의 저항을 사용하여 입력전압을 직접 전압분배하는 방식 대신 전압강하방식의 전기소자(커패시터)로부터 동작전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하여 회로 전체에 사용되는 소자 수 및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동사는 중국의 저가형 LED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디자인부서를 마련하고 심미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각 모서리를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하여 부드러운 느낌의 조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등기구 테두리를 눈꽃 모양으로 타공하여 타공 공간 사이로 은은한 빛이 투과되도록 디자인하여 심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눈의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프레넬(빛 확산) 렌즈를 사용하여 빛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기존 평판 조명 대비 경량화된 소재를 사용하고 AC 와이어 연장선을 적용하여 설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LED 등기구” 품질 비교시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스람과 함께 동사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광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플리커(조명 깜박임), 수명성능, 내구성, 전자파 부분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사의 모든 조명 제품은 KC인증 또는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자외선 및 적외선 방사가 없는 장수명, 고효율, 친환경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가정 외에도 주차장, 공장 등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7] LED 등기구 광효율 평가결과

브랜드	판매원	모델명	안전성 주1	광효율 (전력당 밝기) 주2	플리커 (빛의 깜박임) 주4	내구성 주5	연색성 주6	전자파 (전자파장애) 주7	표시사항	표시 소비전력 [W]	품질 보증 기간	구입 가격* [원]
두영조명	두영조명㈜	BSV-L50120SRMC2	○	★★	★★★★	○	○	X	○	50	2년	18,670
바텍	㈜삼정전기	BBT-RM-50W65KS	○	★★ ^{주3}	★	○	○	○ ^{주8}	X ^{주8}	50	2년	26,910
번개표	금호전기㈜	Q5065-R45D	○	★	★	○	○	○	○	50	1년	24,150
솔라루체	㈜솔라루체	SIRC50520-57L	○	★★	★★★★	○	○	○	○	50	3년	56,370
오스람	㈜레드벤스	LEDVAL CEILING 50W/865	○	★★★★	★★★★	○	○	○	○	50	1년	20,750
이글라이트	㈜날영전기	CLFS50357C01X1	○	★	★★★★	○	○	○	○	50	1년	35,880
장수램프	우리조명㈜	WM-1812ALMO-50	○	★★★★	★★★★	○	○	○	○	50	1년	33,000
코롬	㈜코롬텍	LFL-5065C	○	★★	★★★★	○	○	○	○	50	1년	31,390
필립스	시그니파이 코리아㈜	9290020053	○	★★	★★★★	○	○	○	○	65	2년	59,250
한샘	㈜한샘	FR3060HS-CNINW5700L	○	★	★★★★	○	○	○	X ^{주9}	60	5년	73,100
히포	㈜디에스이	LPAM050CA	○	★ ^{주3}	★	○	○	X ^{주8}	X ^{주8}	45 (50W Type)	1년	32,590

*출처: 한국소비자원, LED 등기구 품질 비교시험 결과, 2019.11

■ 스포츠 조명 시장으로 사업 영역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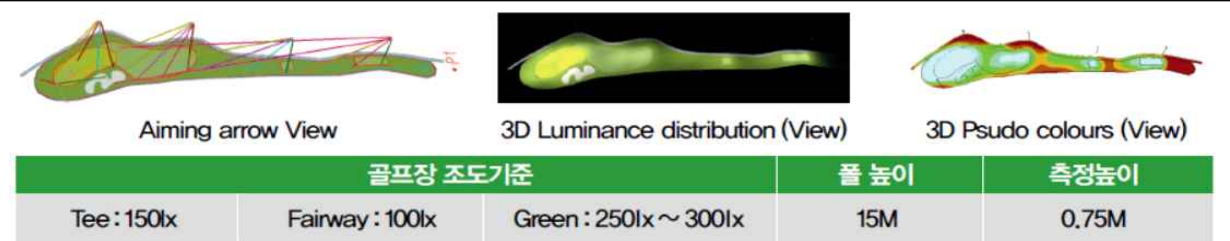
동사는 올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스포츠 조명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동사는 세계 조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필립스의 조명사업부 법인인 시그니파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골프장 등의 스포츠 조명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장 수요 증가와 LED 방식으로의 조명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로 동사는 필립스의 조명을 이용해 조명 설계 및 설치,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스포츠 조명 설계에선 불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설계와 선수들의 눈부심과 주변 지역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골프장을 예로 들면 코스에 따른 예상 샷 위치, 볼 궤적 추적 및 랜딩 위치 확인을 위한 수직 및 수평 조도, 다양한 배광과 바이저(Visor) 적용 등을 통한 유출 조도 최소화를 위한 설계 등이 필요하며 동사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요건에 맞는 조명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조명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올해 6월 경기도 고양시 올림픽컨트리클럽에 설치된 메탈할라이드 2KW급 투광등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주하고 스포츠 조명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동사는 필립스 스포츠용 LED의 장점(초협각 배광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두운 환경과 전기 소모, 빛 공해 등을 해결한 조명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대한당구연맹과 공식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방송 경기용 조명 제작을 지원하며 스포츠 조명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선수들의 경기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대회장 맞춤형 조명 시설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LED 조명이 적용된 경기장은 프로야구 창원NC파크와 이순신종합운동장, 골프장에선 아덴힐, 한화플라자용인 등이 있으며,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스키장, 빙상장 등 LED 조명으로의 교체 수요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동사 골프장 조도 시뮬레이션 예시



*출처: 동사 홈페이지

[그림 9]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스마트 조명 등 품질향상과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매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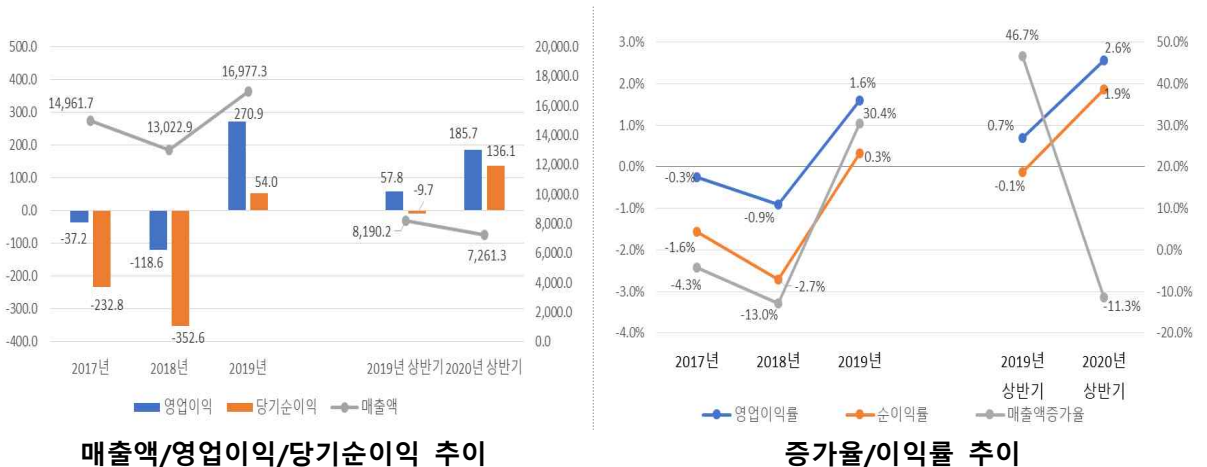
수직계열화된 계열사에 기반한 LED BLU 부문 등 기존 사업이 고르게 성장함에 따라 2019년 매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실적 호조에 따른 원가부담 완화와 인건비 등 관관비 감소로 수익성 개선되어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 2019년 수출 비중이 94.0%로 수출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

동사는 54년 업력을 보유한 광원전문 기업이지만, 조명기구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으며,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은 수직계열화된 계열사에서 나온다. LED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제조 라인을 수직계열화해 경쟁력을 다지고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 및 사업영역은 FPCB, TFT-LCD와 관련된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우리바이오, LED 소자를 이용한 LED 패키지, LED 모듈, 일반조명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우리이앤엘, TFT-LCD용 백라이트 부품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뉴옵틱스, SMT 생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 우리Vina Co., Ltd., 백라이트 부품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신보전자유한공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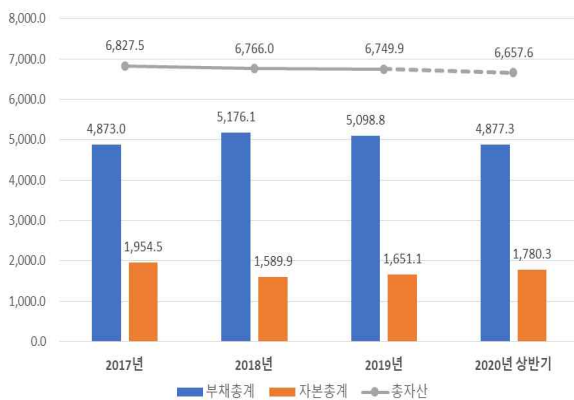
2019년 연결기준 매출 유형별 구성비율은 LED BLU 부문 97.2%, 조명사업부문 1.5%, PCB/도광판 부문 1.2%, 바이오(건강기능식품) 부문 0.1%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LED BLU 부문을 통해 연간 총 매출액의 95%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출을 통한 매출규모는 1조 1,757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94.0% 기록하는 등 높은 매출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조명사업 부문과 PCB/도광판 부문은 1% 내외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우리바이오를 통해 신규 사업인 바이오(건강기능식품) 부문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19년의 매출 비중은 0.1%로 확인되었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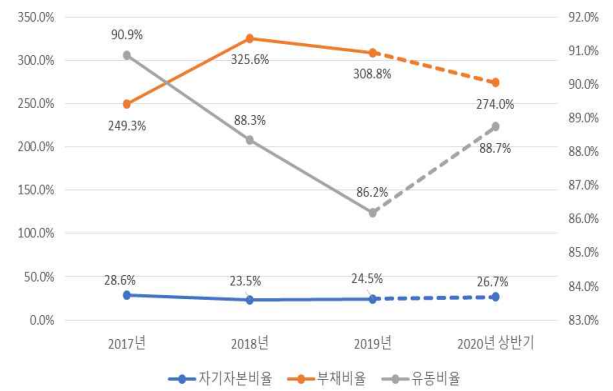


*출처: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그림 11] 동사 연간 및 상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2019년 계열사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

동사는 2019년 연결기준 전년 1조 3,023억 원 대비 30.4% 늘어난 1조 6,9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조명, LED, FPCB 등 수직계열화된 계열사에 기반한 기존 사업의 고른 성장과, 신규 사업인 바이오 부문의 매출 기여 덕분이다. 신보전자유한공사가 2019년 9,9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주)뉴옵틱스 미국법인이 3,143억 원, 뉴옵틱스가 2,524억 원, 뉴옵틱스 중국법인 1,776억 원을 기록하는 등 계열사의 실적 호조가 2019년 매출 실적을 견인하였다.

매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원가부담 완화와 인건비 등 판매비 감소로 2019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18년 연결기준 119억 원의 적자에서 2019년 271억 원의 흑자로 돌아서는 등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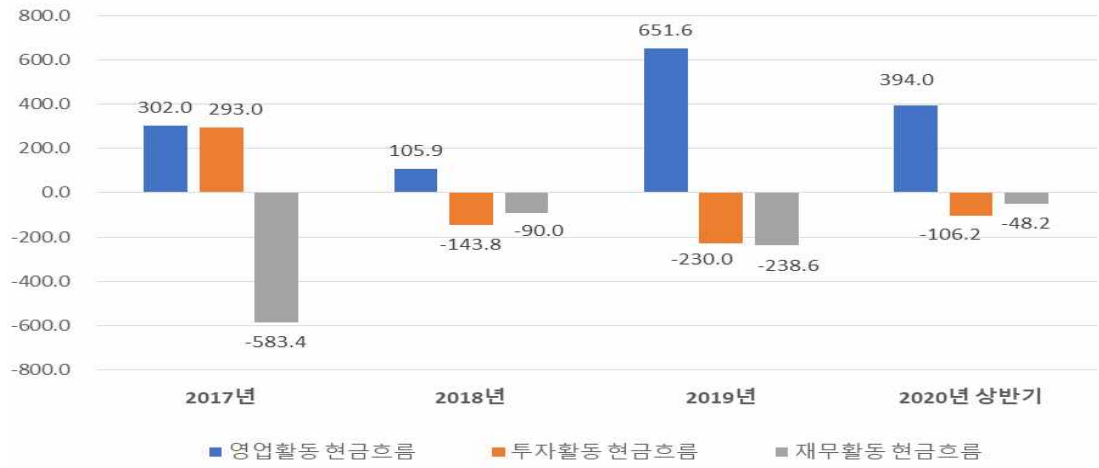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매출 실적은 주춤했으나, 수익성은 상승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0% 감소한 7,261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22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하였다. 동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부담 축소 및 판매비 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58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외형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 역시 13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2019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양호

2019년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이 증가됨에 힘입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금융상품 및 유형자산 취득 등으로 인한 투자활동의 자금소요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한 재무활동상의 자금소요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액으로 충당하였다. 기초 현금보유액이 193억 원이었으나, 기말 37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12]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존 조명 분야 외 신사업 분야 진출 모색

동사는 기존 홈 조명, 상업조명 분야에서 스포츠 조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옥외용 조명 장치 분야 진출을 위한 가로등 등의 신규 제품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

■ 스포츠 조명 시장 진출

야간 경기를 위해 설치되는 스포츠 조명은 어두운 공간을 밝게 비추기 위해 많은 조명과 고출력의 조명이 사용되어 소모 전력이 크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LED 조명은 기존 메탈할라이드 등의 조명 대비 전력 소모가 적고 오랜 기간 사용가능하여 스포츠 조명 시장에서는 LED 조명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동사는 필립스의 조명사업 법인인 시그니파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골프장 등의 스포츠 조명 시장으로의 신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올해 6월 경기도 고양시 올림픽컨트리클럽에 설치된 메탈할라이드 2KW급 투광등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주하고 스포츠 조명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이 외에도 동사는 판매처 다변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옥외용 조명 장치 시장 진출을 위해 LED 가로등 등의 신제품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

■ 관계사 우리이앤엘 LG디스플레이 납품 점유율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LG이노텍이 LCD패널 사업을 철수하면서 LG이노텍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노트북, 태블릿, 사이니지 등의 IT 제품용 LED BLU 공급 물량을 관계사인 우리이앤엘이 확보하며 LG디스플레이 내 LED BLU에 대한 납품 점유율이 증가하여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계사 우리바이오 : 바이오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의 가능성 발견

동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우리이티아이는 2019년 3월 우리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 생산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다. 우리바이오는 모바일 및 자동차 전장부품에 사용되는 FPCB와 LCD TV의 광원으로 쓰이는 LED BLU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 영향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LG디스플레이의 LCD 생산 축소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세에 신규 사업인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밀폐형 식물공장을 기반으로 약용작물 재배 및 핵심성분 추출, 가공 등 천연물 소재 사업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7,149억 원, 영업이익 178억 원의 영업실적을 나타내 영업이익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하는 등 금년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